

# 국립무형유산원 송년공연 '장수長壽파티'

10일 무형유산 전통적 무대·동시대적 가치 공존 무대 만날 수 있어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10일 오후 4시 일주마루 대공연장에서 송년공연 '장수長壽파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개원 10주년을 앞둔 국립무형유산원의 지속 발전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송년공연은 무형유산 전통 원형의 고유성과 전통미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통의 다채로운 원천과 형식을 활용해 다양한 음악적 실험이 돋보이는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2023년 개원 10주년을 앞두고 국립무형유산원의 지속적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장수長壽파티' 공연은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전통창작 공연 활동을 해온 10년 이상 장수 공연팀들이 출연해 무형유산 전통적 무대와 동시대적 가치가 공존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부 공연자로는 한국음악그룹 엑스(AUX),

국악이카펠라 그룹 토리스, 전통음악그룹 불세출, 남자무용수로 구성된 청무용단, 전통연희단체 놀이꾼들 도담도담, 한누리 연희단, 길위의 시나위 팀 등으로, 추현종의 사회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한국의 탈춤' 등재 기념을 축하하는 프로그램인 '척어 째이'도 감상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송년공연을 통해 국립무형유산원이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기회이자, 무형유산이 국민의 일상 속에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예약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5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송년공연 '장수長壽파티' 포스터

## 뮤지컬 '엘리자벳' 국내 초연 10주년 전주 공연 펼쳐진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연말 기획공연으로 뮤지컬 '엘리자벳'의 마지막 시즌 무대를 준비했다.

5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연출, 무대, 안무 등의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예정인 '엘리자벳'은 이번 전주 공연에서 국내 제작 10년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파날레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9~11일 모악당에서 만날 수 있는 뮤지컬 '엘리자벳'은 국내 무대연출의 백미로 평가받는 이종 회진무대와 3개의 리프트, 11m에 달하는 브리지(Bridge)를 전주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한편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프란츠 요제프 1세의 황후 '엘리자벳'의 드라마틱한 인생에 '죽음'이라는 허구적인 캐릭터를 등장시켜, 역사적 사실과 판타지적 요소를 결합시킨 스토리로 27년간 12개국에서 누적 관객 1,100만 명을 기록한 스테디셀러 대작이다.

전당 관계자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쓸쓸한 삶을 살며 죽음의 유혹을 받는 엘리자벳의 드라마 같은 굴곡진 인생이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에 의해 탄생한 매력적인 넘버들과 어우러지며 한 쪽의 파노라마처럼 무대에 펼쳐진다"며 "출연진도 살아있는 엘리자벳이란 찬사를 듣는 육주현을 비롯해 이지혜, 김준수 등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 열연을 펼치는 다시 보기 힘든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800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둘레 '시민 뮤지컬단', 하반기 공연 연지아트홀서 열린다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둘레(이사장 안수용)의 '시민 뮤지컬단'이 오는 11일 연지아트홀에서 하반기 공연을 올린다.

이번 공연에 '시민 뮤지컬단' 단원들은 하나의 뮤지컬 작품에 도전한다. 오디션을 통한 배역 캐스팅 후, 극에서 필요한 요소인 연기, 노래, 안무 등에 도전하며 낯설어 연습하여 실력을 갈고 닦았다.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임금 착취와 괴로운 업무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 감정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서점 직원, 장애가 있는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주인집 할머니, 자식을 두고 나와 혼자 살고 있는 희정 엄마 등 오늘날을 살아

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뮤지컬로 "서울 살이 몇 헉가요?",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슬플 땀 뻘래를 해" 등등의 넘버가 포함되어 있다.

누구에게나 현실은 녹록치 않은 법, 하지만 일상 속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하며 건네는 손길을 통해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는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수용 이사장은 "시민 뮤지컬단이 여러 공연에 도전하면서 뮤지컬을 스스로 즐기며 점점 발전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멋있다"며 "시민 뮤지컬단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 기획 할인전 '색동-겨울에 색을 입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기획 할인전 '색동-겨울에 색을 입히다'를 진행한다

가격은 10% 할인가로 '정성 봉투' 8,100원부터 '니트 펠트 꽃 모자' 7만7,400원까지 다양하다.

선물을 위한 포장 서비스는 무료며, 기획상품 포함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머그잔'도 증정한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기획전은 연말연시 선물하기 좋은 품목으로 엄선했다"며 "공예품으로 온기를 전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 할인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구매는 현장 및 온라인 쇼핑몰 명인몰(jshop.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가격은 10% 할인가로 '정성 봉투' 8,100원부터 '니트 펠트 꽃 모자' 7만7,400원까지 다양하다.

선물을 위한 포장 서비스는 무료며, 기획상품 포함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머그잔'도 증정한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기획전은 연말연시 선물하기 좋은 품목으로 엄선했다"며 "공예품으로 온기를 전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 할인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구매는 현장 및 온라인 쇼핑몰 명인몰(jshop.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송화자 명인의 공개행사가 지난 3일 오후 3시 남원 지리산 소극장에서 열렸다.

## 도 무형문화재 송화자 명인 공개행사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보유자 인정 후 첫 행사 가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송화자 명인의 공개행사가 지난 3일 오후 3시 남원 지리산 소극장에서 열렸다. 송화자 명인은 지난 8월 19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인정)되었으며, 이번 공개행사는 명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후 처음으로 갖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크게 '짧은 산조'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짧은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로 이루어졌다. 이어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다스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 뒷다스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송화자 명인은 동편제 판소리 집안에서 태어나 14세부터 어머니 박정례(전라남도 흥보가 무형문화재)에게 풍류, 성금연류 산조, 병창을 배웠고 서울 국립국악 고등학교, 추계 예술대학교,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원 재학시절 김죽파 선생님을 만나 김죽파류 산조를 전수 받았으며, 이후 40여년 동안 김죽파류 산조로 9번의 독주를 개최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우륵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 남원 시민의장 문화장, 남원 향토문화대상 등이 있다.

또한, 명인은 50여년간 가야금과 함께한 세월을 보냈으며 1983년 남원 시립 국악원에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39년 동안 남원에서 활동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 매진하고 있다.

김죽파류를 여성스러운 산조라고 평하기도 한다. 송화자 명인은 "김죽파 선생님의 산조가 태산 같은 성음의 무게로 다가왔고, '흔이 손 끝에 떨어져야 성음이 난다'는 생전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전승공예품 선보인다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오는 9~11일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2022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제작한 다채로운 전승공예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운영 중인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전승공예품 인증제, 이수자지원 사업의 2022년도 결과물 등 총 180여 점이 공개된다.

한편 '2022 공예트렌드페어' 입장은 온라인

사전 예약 및 현장 결제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of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더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 전승공예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전승공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